

들어가며...

태국은 2024년 3월 하원, 6월 상원을 통과한 동성 간 결혼 허용을 골자로 한 '결혼평등법'에 9월 24일 마하 와찌랄롱꼰 국왕이 서명했고, **2025년 1월 23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인 1월 24일 전국에서 약 **1천 832쌍의 동성 커플이 결혼**하고 당국에 혼인 신고를 했다고 태국 지방행정부가 밝혔습니다. 2000년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태국은 전 세계에서 40번째, 아시아에서는 3번째, 동남아시아에서는 최초로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จำนวนผู้ลงมติ	414
เห็นด้วย	399
ไม่เห็นด้วย	10
งดออกเสียง	2

2024년 3월 27일 태국 하원 총 414명의 표결자 중 399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동성결혼이 통과됨

그렇지 않아도 마약과 성적인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태국이 공식적으로 동성간의 결혼을 합법화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태국의 복음화 상황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염려로 인해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이런 암울한 상황에서 태국의 교회가 분연히 일어서고 있습니다. 2028년, 태국 선교 200주년을 맞이하여 **"100만 성도, 1만 교회, 1만 목사"**의 가치를 걸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태국복음화율이 0.75%(2024년 기준)**밖에 되지 않지만, 태국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태국의 성도들과 선교사들을 통하여 이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며 <땅끝 신 일곱 번째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1. 서울비전교회 단기선교(2월 14-18일)

2023년 2월에 이어 두 번째로 파송교회에서 치앙라이로 단기선교를 왔습니다. 저녁마다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태국 북부 치앙라이 지역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 땅밟기

치앙라이 주요 지역들을 다니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비행기가 치앙라이로 내릴 때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후어이블라깅** 사원의 90m나 되는 관음상입니다. 높은 곳에 위치해 있어서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는 치앙라이의 랜드마크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태국과 치앙라이의 위에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치앙라이는 태국 북부에 위치해 있어서 미얀마와 라오스의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기에 **선교의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미얀마가 내려다 보이는 국경수비소에서, 매콩강을 건너 라오스땅에서, 그리고 태국으로 돌아오는 선상에서 내전 중에 있는 미얀마의 상황과 여전히 크리스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라오스의 상황들, 그리고 태국의 현실들을 함께 나누며 기도했습니다.



매콩강 선상



후어이블라깅



미얀마와 태국의 국경지역



골든트라이앵글



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2. 세례 및 예배

미미(15세)와 **준**(14세)이 2월 16일 주일 아침, 아직 강물이 차가웠지만 태국 치앙라이 성도들과 서울 비전교회 성도들이 함께한 가운데 신현수 목사님의 주례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평생에 잊지



미미 준

못할 감사의 날이요, 은혜의 날인 줄 믿습니다. 미미와 준이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그들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례를 마치고 바로 치앙라이 비전교회로 돌아와서 7곱 민족(아카족, 카렌족, 라후족, 카무족, 야우족, 타이족, 한국인)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의 자녀들이 노래하며 춤추며 기쁨으로 하나 되어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린 그 시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지금 생각만 해도 하나님의 기쁨이 느껴집니다.



3. 파드아 마을 전도



파드아 교회

파드아 마을은 350여 가구, 약 1,500명 정도가 사는 야우족(미엔족) 마을입니다. 이 마을은 무당이 4명이나 있을 만큼 영적으로 많이 암울합니다. 마을에 있는 파드아 교회(니엷쌌판 전도사)는 현재 성도들이 8명 있습니다.

16일 주일 저녁에 함께 식사하며 늦은 시간까지 김치를 담그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17일은 야우족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날('완룽'(바람의 날))이었습니다. 이날은 귀신들이 바람을 타고 다니며 사람들을 괴롭힌다고 해서, 마을에서 큰소리를 내지 못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고, 학교까지 휴교를 했습니다. 미리 기도로 준비하고 왔기에 조심히 성도집을 심방하고 파드아 초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조용히 마을을 땅밧기하며 주께서 파드아 교회를 붙드시고 파드아 마을을 통치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오지 않았지만, 파드아 학교를 방문하여 담당 선생님을 만나 선물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 학교는 학생이 69명, 교사가 8명이 있는데, 이 학교에 크리스천으로는 교사 한 분만이 있습니다. 한 분 선생님께서 말미암아 아이들이 변화되고 학교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김치만들기



성도가정 심방



파드아 초등학교

4. 신학교 방문

제가 섬기고 있는 북태성도신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아무리 먹어도 배고픈 젊은 신학생들에게 피자는 최고의 음식입니다. 풍성한 피자과 음료, 그리고 파드아에서 만들었던 김치와 여러 선물들을 전달했습니다. 입이 귀에까지 걸린 친구들을 보니 참 흐뭇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학교의 비전과 학생들의 학업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학생들을 마음껏 사용해 주시기를...



5. 커피 한 잔의 여유

치앙라이는 산이 많은 지역입니다. 이곳은 특히 커피와 차, 꽃밭으로 유명합니다. 과거에 마약으로 뒤덮혀



있던 이곳에 현 태국 국왕 **마하 와찌랄롱꼰**의 할머니인 **스리나가린드라** 왕비가 마약중독에 빠진 주민들의 생활터전을 마련해 주기 위해 정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어려운 생활을 해오던 고산족들이 꽃과 식물, 커피와 차를 재배하며 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메파루엥 왕비공원



추이평 차밭

한 사람의 영향력으로 치앙라이 고산족의 삶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한 사람 영적리더가 불교와 온갖 미신으로 인해 억눌린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복음으로 완전히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4박 5일간 서울비전교회를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단기선교의 준비와 발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도전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 귀한 열매로 나타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2. 가족들 이모저모

윤가네 가족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동안 둘째 딸 하림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하게도 2월 11일, 최종 발표결과 **하림이가<서울지역 역사교육 임용고시>에 합격 하였음**을 통보받았습니다. 바로 일정기간 연수를 받았고 3월 4일부터 동대문 중학교로 발령을 받아 3학년 담임선생님으로 출근합니다. **하림이가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고 학생들을 잘 가르치고 지도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부탁 드립니다.**

막내 민하는 잠시 태국에 들어왔습니다. 이곳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며, 치앙라이 비전교회를 섬기며, 민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1. 태국교회와 선교사들이 기도하는 태국 선교 200주년(2028년)에 100만 성도, 1만 교회, 1만 목사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2. 태국이 동성간 결혼이 합법화 되고, 마약이 걸잡을 수없이 퍼져 있어 영적,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태국땅에 영적으로 혼미한 것들이 떠나가고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3. 치앙라이 비전교회가 든든히 서 갈 수 있기를. 그리고 세례를 받은 미미와 준이 믿음으로 잘 성장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4. 대학생 사역을 위해서 허팍(기숙사)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준비하는 모든 과정과 학생모집(4명)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5. 파드야 교회(니뻬세판 전도사)가 빛과 소금이 되어 파드야에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6. 흩어져 있는 저희 자녀들이 선교사적 삶을 살아 어디서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시편 73편 28절)

**땅 끝에서 윤상호, 이금숙(아인, 하림, 민하) 선교사
2025년 2월 28일**

